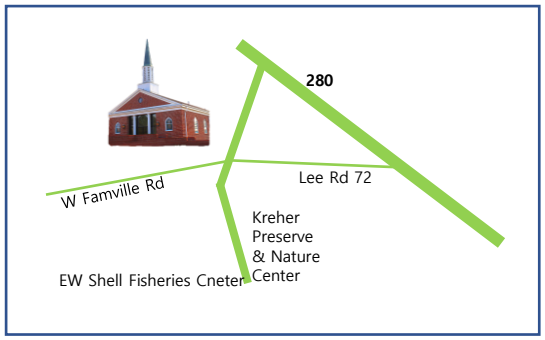
뉴라이프 교회 목적문

뉴라이프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 위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소원을 알고, 그 소원을 우리 가슴에 채워,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도록 양육하고 성장시켜, 세상가운데 증인의 삶을 살게한다.

2026 8차 성경통독

7월13일	여호수아 6-12	
7월14일	여호수아 13-19	
7월15일	여호수아 20-24	
7월16일	사사기 1-5	
7월17일	사사기 6-9	
7월18일	사사기 10-16	

오시는 길



3607 AL Highway 147, Auburn, AL, 36830
담임목사님 cell: 334-669-8722
담임목사님 e-mail:pastorjacobkim@gmail.com
교회 홈페이지: www.auburnkoreanchurch.org

교회소식

1.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2. 제8차 성경통독(6/1~12/30) 기간입니다. 어려운 모세5경이 끝나고, 재미있는 새 땅 정복의 여호수아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말씀 해석과 적용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2026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새해를 준비하십시오

3. 목사님 가족이 긴 여행 동안 안전히 다녀오게 하신 하나님과 기도해 주신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4. 지난 2주 동안 말씀 전해 주신, 박혜성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는 은퇴하신 캘리포니아 남가주 훼로쉽교회에 인트림으로 가셨습니다.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5. 셀모임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는,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모입니다.

6. 하루3번, 3분씩, 3가지 기도 제목(나라, 교회, 목사님)의 333 기도요원 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7. 7월에 생일을 맞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19일 정은정 23일 김태헌

후원 선교사와 교회

튀니지: 이원규, 김경희 선교사님
호피인디언 선교: 앤디유 선교사님
이치과 장학금

괄호 정답

1. 동화 2. 유턴 3. 바라

7월 섬기시는 분

	7/12	7/19	7/26	8/2
성경봉독	임경진	김소원	김시연	김태헌
친교	봉사부	봉사부	봉사부	봉사부
행사	성경통독	성경통독	성경통독	성경통독

제16권 27호 2026년7월12일

말씀과 찬양으로 대적의 문을 취하라 (수6:20)

2026년 실천 사항
1. 말씀과 함께 걷기
2. 찬양으로 싸우기
3. 담대함으로 나아가기
4. 공동체로 약속 누리기

창립: 2011년 4월 24일

뉴라이프 교회
New Life Church

담임목사: 제이콥 김

뉴 라이프 어번한인침례교회

New Life Korean Baptist Church of Auburn

예배 순서

❖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2시 25분

(찬양과 입례송)

❖ 찬양과 경배 김상태 집사님
Praise & Worship

내 맘을 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내가 예수 믿고서
(찬송 421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송 9장)

(교회 소식과 봉헌)

❖ 교회 소식 인도자
Announcement

❖ 성경 봉독 히브리서 11장 13-16절
Scripture Reading 임경진 집사님

❖ 봉헌 기도 인도자
Offering Prayer

(말씀과 결단)

❖ 말씀 선포 담임 목사님
Sermon

"여행자 같은 순례자의 삶"

❖ 결단의 기도 다같이
Prayer of Commitment

(축도와 파송)

❖ 축도 담임 목사님
Benediction

설교 본문 말씀

제목: 여행자 같은, 순례자의 삶 (히 11:13-16)

1. 이 땅에 ( )되지 않는 거룩한 분리 (13절)

• 나그네(Ger)의 정체성: 정처 없는 방랑자가 아니라, 확실한 목적지가 있기에 세상 가치관에 동화되지 않는 자입니다.

• 광야 바위틈의 은혜: 미래가 안 보이던 유학생 초창기 광야 시절에도, 주님은 움푹 패인 바위틈(출 33:22)에 숨기사 신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 하늘 시민권: 이민자의 삶은 늘 나그네 같으나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2. 세상으로의 ( )을 거부하는 신앙 (15절)

• 과거 회귀 거부: 안락했던 육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어도, 참된 믿음은 세상으로의 유턴을 거부합니다(눅 9:62).

• 움켜쥔 마음 놓기: 폼페이의 유해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보석 주머니를 움켜쥐다 죽었습니다. 문제는 소유의 양이 아니라, 떠나야 할 때 떠나지 못하는 영적 마비입니다. 순례자는 더 영광스러운 하늘 본향을 보았기에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3. 예비하신 영원한 성을 ( )보는 소망 (16절)

• 실재하는 본향: 주님이 예비하신 '한 성(City)'은 눈물 없는 만남과 영원한 기쁨의 축제가 있는 실제 처소입니다.

• 인생의 마지막 밤: 긴 여행 끝에 진짜 집(Home)에 왔을 때 안도감이 있듯, 우리 인생도 마지막 밤이 지나면 본향으로 향하는 '두 번째 여행'을 떠납니다.

• 단독자로 서는 날: 마지막 여행에는 백 하나, 캐리어 하나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흔적'을 가진 영혼만 서게 됩니다.

[결론]

이 땅에 정착할 것처럼 집착하지 않고 가볍게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집 '하늘 성'으로 영접해 주십니다. 나그네처럼 가볍게, 순례자처럼 당당하게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양손에 칼과 삽을 든 당신에게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히브리서 11:13, 16)

알프스 마흔네 개의 봉우리를 모두 정복한 전설적인 산악 가이드, 멜키오르 안데레크(Melchior Anderegg)의 일화입니다. 그가 은퇴를 앞두고 평생 산을 오르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지혜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주저 없이 자신의 낡은 배낭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에 오를 때 가장 미련한 사람은 배낭에 너무 많은 것을 넣는 사람입니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금 한 덩이보다 가벼운 물 한 모금이, 화려한 외투보다 발걸음을 가볍게 해줄 가뿐한 어깨가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해집니다. 진짜 베테랑은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배낭을 비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정착할 정착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 성을 향해 걷는 '순례자(Pilgrim)'입니다.

순례자의 가장 큰 자유는 '소유'에 매이지 않는 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무겁고 화려한 배낭을 메기 위해 평생을 고군분투하지만, 우리 순례자들은 다릅니다. 이 땅의 물질과 안락함은 잠시 머무는 간이역의 풍경일 뿐, 우리가 영원히 머물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손에 쥔 세상의 욕심과 영적인 짐이 너무 무거우면, 하늘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지치고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보다 '나그네'의 고단함을 잘 압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정처 없이 떠도는 '방랑자'는 해가 지면 두려워하지만, 돌아갈 집이 확실한 '순례자'는 밤이 깊어질수록 설렙니다. 오늘 하루가 피곤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영원한 본향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소망의 증거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나의 영적 배낭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언젠가 두고 가야 할 이 땅의 보석 주머니를 채우느라 어깨가 무거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본향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은 오늘 내 손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이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완벽한 하늘 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중의 삶 속에서 세상의 짐은 가볍게 덜어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과 사랑의 발걸음은 더욱 당당하게 내딛는 거룩한 천국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